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설명자료</h1>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10. 15.(금) / 총 1매	
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	담당자	• 과장 신광호, 사무관 김관식, 주무관 강운빈 • ☎ (044) 201-3432, 3430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	

부동산 감정평가 67% 부실은 사실이 아닙니다.


< 관련 보도내용 (매일경제, '21.10.15) >

- ◆ 2017년 이후 타당성조사결과 전체 215건 중 66.5%인 143건이 부적정
- ◆ 2019년부터 2020년 표본조사 결과 26.3%가 절차 미준수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감정평가법')에 따라 부실이 의심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'17~'20년 집계된 감정평가 건수는 221.6만건이며,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건은 총 200건이고, 부적정으로 조사된 건은 132건입니다.
- 즉, 연평균 55.4만건의 감정평가 중 부적정으로 조사된 감정평가는 연평균 33건으로 약 0.006% 수준입니다.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합계	연평균
감정평가 건수	530,886	513,313	562,883	608,799	2,215,881	55.4만건
타당성조사 건수	23	27	68	82	200	50건
부적정조사 건수	20	18	34	60	132	33건

- 표본조사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, 절차 미흡으로 조사된 사항은 부실 감정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관식 사무관(☎ 044-201-343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